

국어활동 독서단원

#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마음잇는아이 06

## 오소리 쿠키

조영서 지음 | 애송 그림

152\*215(신국판) | 96쪽 | 정가 10,000원

마음아름 펴냄

SBN 979-11-89010-07-2(74800)

출간 : 2019.02.10

대상 : 초등 저학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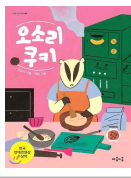
주제어 : 꿈, 실패, 성공, 이웃, 엄마의 사랑, 배려  
도전

### ● 추천내역

한국안데르센상 수상작  
책과노는아이들 추천도서  
이달에꼭만나볼책 추천도서

### ● 교과연계

3학년 1학기 국어6. 일이 이러나는 까닭  
3학년 2학기 국어6. 글에 담긴 마음



# 오소리 쿠키 (초등 3학년)

마음이음 | 조영서 글 / 애송 그림

## 표지 탐색하기

<오소리 쿠키>를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오소리 쿠키'에서 '오소리'는 어떤 동물인지 백과사전에서 찾아 쓰세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책 뒷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법 자란 오소리는 엄마에게서 떠나 혼자 살아야 해요.

“네가 잘할 수 있거나, 네가 하면서 즐거운 일을 해라.”

오소리는 자기가 고치는 걸 잘하는 것 같아 수리점을 차렸다가 문을 닫아요.

상심한 오소리에게 사막 들쥐는 오소리가 만든 쿠키가 참 맛있다고 하네요.

오소리가 쿠키 가게를 열어도 될까요?

자신의 장점을 발전시켜 나가는 오소리를 보며 내 꿈도 찾아보세요.

① '엄마'는 제법 자라서 혼자 살게 된 '오소리'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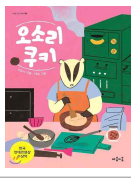
⇒

② '오소리'가 했다가 실패한 일과 앞으로 하려고 생각한 일을 쓰세요.

⇒







# 오소리 쿠키 (초등 3학년)

마음이음 | 조영서 글 / 애송 그림

## 01. 새로운 시작이야

<오소리 쿠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오늘은 오소리가 이사하는 날이야. 엄마 품을 떠나 혼자서 살아야 할 때가 왔거든. / “네가 할 일을 꼭 찾아라!” / 엄마가 오소리에게 입을 맞추며 말했어.

“그게 뭐야?” / 오소리는 설레기도 했지만, 걱정도 한 보따리였어.

“네가 잘할 수 있거나, 네가 하면서 즐거운 일!”

엄마는 판박이처럼 똑 닮은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어 주었어.

“아하!” / 오소리가 고개를 끄덕였어. / “엄마는 너를 믿어.” / 엄마 말에 오소리는 뭐든 자신이 생겼어. 또 새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은 두근거렸지.

(나) “야호!” / 오소리가 오븐을 고친 거야. 스스로 낡은 집을 치우고, 부서진 창문을 고치고, 전등을 달았어. 게다가 낡은 오븐까지 고치다니 말이야.

‘나한테 이런 재주가 있다니!’ / 오소리가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았어.

‘이 정도 실력이면 다른 친구들 것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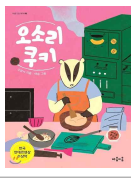
오소리는 하얀 종이에 끼적끼적 글자를 써서 문 앞에 붙였어.

**뭐든지 다 고쳐 드립니다**

1) (가)에서 ‘엄마’는 혼자 살아야 하는 ‘오소리’에게 잘할 수 있거나 하면서 즐거운 일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신이 잘할 수 있거나 하면서 즐거운 일을 써 보세요.

2) (나)에서 ‘오소리’가 혼자 살면서 발견한 자신의 재주를 쓰세요.

⇒



# 오소리 쿠키 (초등 3학년)

마음이음 | 조영서 글 / 애송 그림

## 02. 뭐든지 고쳐 준다고?

<오소리 쿠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오소리는 활짝 펴진 우산을 힘없이 마루에 내려놓았어. 작업복도, 뉘싯대도, 우산까지 뭐 하나 제대로 고친 게 없었어. 오소리는 이대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어.

“내 작업복 다 꿰맸니?” / 멧돼지 아저씨가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어. 마룻바닥에 펼쳐진 작업복에는 꿰매다 만 주머니와 바늘이 너털너털 달려 있었지.

“내 뉘싯대 고쳤니?” / 곰이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왔어. 곰이 꿰어진 뉘싯줄을 보더니 더는 웃지 않았어.

“내 우산 고쳤어요?” / 토끼는 접히지 않는 우산을 보고 빨간 눈이 더 빨개졌지. 셋 다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 버렸어.

짱! 요란하게 닫히는 문소리가 오소리 가슴에 콕 박혀 버렸지.

‘잘 고칠 줄 알았는데…….’

그때 오소리 눈에 초록색 오븐이 들어왔어. 오븐에서 엄마가 구워 주던 쿠키 냄새가 나는 것 같았지.

‘이렇게 속상할 때 달콤한 쿠키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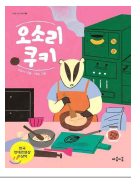
오소리는 쿠키를 직접 구워야겠다고 생각했어. 엄마가 하던 대로 따라하면 될 거야.

1) 윗글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말과 반응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① 멧돼지 아저씨 : □□□□ 을 다 꿰맸냐며 물었지만 작업복에는 꿰매다 만 □□ □□와 □□이 달려 있었음.	② 곰 : □□□□를 고쳤냐며 웃으며 들어왔다가 꿰어진 □□□□을 보더니 더는 □ □□ 않았음.	③ 토끼 : □□을 고쳤냐고 물었지만 접히지 않는 □ □□을 보고 □□ □이 더 빨개졌음.
--	--	---

2) 윗글에서 속상한 ‘오소리’가 무엇을 하려고 생각했는지 쓰세요.

⇒



## 오소리 쿠키 (초등 3학년)

마음이음 | 조영서 글 / 애송 그림

### 03. 집 나온 사막 들쥐

<오소리 쿠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고치고 싶은 게 뭐야?” / 오소리가 사막 들쥐에게 물었어.

“우리 엄마요!” / 사막 들쥐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 오소리가 깜짝 놀랐어.

“엄마가 어디 아픈 거야?”

“에이, 그런 게 아니라고. 내 말을 하나도 들어 주지 않아서요.”

(나) “우리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면 나더러 무조건 세수하라고 해요. 물이 아주 차가운데도 말이에요.” / “정말 싫겠다.”

“엄마는 먹고 싶지 않은 아침밥은 꼭 먹으라고 하면서, 정말 맛있는 간식은 동생들에게 양보하라고 해요.” / “정말 짜증 나겠다.”

“왜 잠이 오지 않는데 이불 안에 들어가 눈을 감고 누워 있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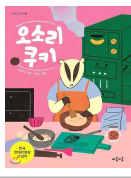
“그러게 말이야.” / “엄마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날도 꼭 일기를 쓰라고 해요. 참, 왜 그래야 하냐 말이에요!” / “내 말이!” / 오소리는 사막 들쥐의 말에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 오소리도 엄마 잔소리 때문에 짜증 난 적이 많았거든.

“……이러니 내가 엄마를 고치고 싶지 않겠어요?”

1) 윗글에서 ‘사막 들쥐’는 자신의 ‘엄마’를 고치고 싶다면 ‘오소리’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막 들쥐’의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2) (나)에서 ‘오소리’가 ‘사막 들쥐’의 말에 맞장구를 쳤던 이유를 쓰세요.

⇒



# 오소리 쿠키 (초등 3학년)

마음이음 | 조영서 글 / 애송 그림

## 04. 쿠키, 쿠키, 쿠키

<오소리 쿠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아저씨, 딱 하나만…….” 오소리도 양보하지 않았어. 아무리 싫어도 맛도 안 보고 거절하는 게 정말 속상했거든. 멧돼지 아저씨는 오소리에게서 아예 등을 돌려 버리지 뭐야. “쿠키는 달고, 이빨에 안 좋고, 맛대가리도 없어. 나는 쿠키가 싫다고!”

아저씨 입에서 이런 끔찍한 소리가 튀어 나왔어. / ‘너무해!’

(나) 좋아! 맛있고, 몸에 좋고, 저마다 입맛에 맞는 쿠키를 만들면 되잖아. 오소리는 다른 친구들을 떠올렸어. ‘곰은 어떤 맛을 좋아할까?’

곰은 낚싯대를 고쳐 물고기를 잡을 생각이었지. 오소리는 아까와 똑같은 반죽에 물고기를 넣어 쿠키를 구웠어. 고소한 향에 물고기 향이 섞이자 정말 끝내줬어!

(다) 이번에 토끼를 위한 쿠키를 만들기로 했어. 토끼가 좋아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당근이지. 오소리는 당근 쿠키를 만들어서 토끼에게 가져다주었어. 아까보다는 떨리지 않았지. 토끼는 쿠키를 입에 넣어 오도독오도독 씹었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당근이랑 쿠키예요. 그런데 그 두 개를 섞었던 말이지요? 혼자 먹기는 아까워요. 나, 친구랑 나눠 먹을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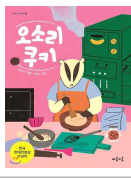
1) (가)~(다)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해 봅시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p>(가) : 오소리는 □도 안 보고 □□하는 것이 속상했지만, 멧돼지 아저씨는 쿠키는 달고 이빨에 안 좋고 맛도 없어서 □□□ 했음.</p>	<p>(나) : 오소리는 맛있고, □에 좋고, 저마다 □□에 맞는 쿠키를 만들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곰을 위해 □□□를 넣어 쿠키를 구웠음.</p>	<p>(다) : 오소리가 □□ □□를 만들어서 토끼에게 주자, 토끼는 씹어 먹으며 □□ 먹기는 아까워서 □□랑 나눠 먹겠다고 말했음.</p>
--	---	--

2) (나)~(다)에서 ‘오소리’가 ‘쿠키’를 만들면서 생각한 것은 무엇인지 쓰세요.

⇒





# 오소리 쿠키 (초등 3학년)

마음이음 | 조영서 글 / 애송 그림

## 05. 멧돼지 아저씨의 비밀 / 06. 오늘은 쉽니다

<오소리 쿠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앗, 내 틀니!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거기 있었구나!”  
 멧돼지 아저씨는 꼭꼭 숨어 있던 쇠붙이를 보자 환하게 웃지 뭐야.  
 아저씨는 이가 약해서 내내 죽만 먹었던 거야.  
 “틀니를 찾았으니 이제 쿠키를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싫어. 난 딱딱한 건 질색이야!”  
 멧돼지 아저씨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어.  
 쿠키라고 다 딱딱하란 법 있나 뭐! 부드럽게 만들면 되잖아.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는 쿠키. 오소리는 멧돼지 아저씨 입맛에 맞는 쿠키를 꼭 만들고 싶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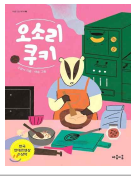
(나) “엄마!” / 쿠키는 신기하게도 엄마를 쏙 빼닮았어.  
 오소리는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었어. 집을 떠난 뒤로 꼭 참았지만 더는 견딜 수가 없지 뭐야.  
 오소리는 쿠키를 모두 바구니에 담았어. 오늘은 엄마와 동생들을 만나러 가야겠어. 엄마에게 쿠키를 선물하고, 그동안 쿠키를 구웠던 일에 대해서 들려줄 거야.  
 ‘히, 내가 잘할 수 있거나, 내가 하면서 즐거운 일!’  
 오소리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지.

1) (가)에서 ‘멧돼지 아저씨’와 ‘오소리’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알맞은 말을 쓰세요.

멧돼지 아저씨는 숨어 있던 쇠붙이인 □□를 보자 환하게 웃었고, 그동안 □□가 약해서 내내 □□만 먹었던 것임.	➔	오소리는 □□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는 □□□□ 쿠키, 멧돼지 아저씨의 □□□□에 맞는 쿠키를 꼭 만들고 싶었음.
--	---	--

2) (나)에서 ‘오소리’가 찾은, 잘할 수 있거나 하면서 즐거운 일은 무엇인지 쓰세요.

⇒



# 오소리 쿠키 (초등 3학년)

마음이음 | 조영서 글 / 애송 그림

## 독해력/표현력 쑥쑥 키우기

1) 다음은 <오소리 쿠키>의 본문에 나온 그림들입니다. 각 그림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진 장면인지 책에서 읽은 내용을 떠올려 쓰고, 내용 순서대로 번호를 나열하세요.

①	②	③
④	⑤	⑥



# 오소리 쿠키 (초등 3학년)

마음이음 | 조영서 글 / 애송 그림

## 정답과 해설

예시답안은 모범답안과는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

1쪽	<p>(예시답안) 1) 족제빗과의 하나. 몸의 길이는 70~90cm이며, 등 쪽은 갈색, 털끝은 잿빛을 띤 백색이다. 얼굴은 원뿔 모양이고, 다리는 짧고 굵으며 앞발에 큰 발톱이 있다.</p> <p>2) 주방에서 분홍색 앞치마를 입은 오소리가 나무 주걱으로 그릇 속의 반죽을 섞고 있다. 그 앞에 도마, 프라이팬, 그릇, 쿠키 등이 있고. 뒤에 오븐과 전자레인지가 있다.</p> <p>3) ① 내가 잘할 수 있거나, 내가 하면서 즐거운 일을 해라.      ② 했다가 실패한 일은 수리점이고, 앞으로 하려고 생각한 일은 쿠키 가게이다.</p>
2쪽	<p>① 수납장, ② 판박이, ③ 재주, ④ 맛장구, ⑤ 반죽, ⑥ 틀니, ⑦ 우산살, ⑧ 파배기, ⑨ 절구, ⑩ 분</p>
3쪽	<p>1) ②, ③, ⑤, ④, ①      2) ㉠ : 풀다(풀면), 꼬이다(꼬이더니) / ㉡ : 질다(질거나), 뻑뻑하다(뻑뻑했어)      3) 풀이 죽</p>
4쪽	<p>1) (예시답안) 내가 잘할 수 있고, 하면서 즐거운 일은 그림 그리기이다. 유치원 때부터 어떤 그림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다 보니 점차 그림 실력이 늘어서 무엇을 그리거나 상상하여 그리는 것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p> <p>2) 낡은 집에 있는 부서진 창문과 낡은 오븐을 고치는 실력</p>
5쪽	<p>1) ① : 작업복, 주머니, 바늘 / ② : 낚싯대, 낚싯줄, 옷지 / ③ : 우산, 우산, 빨간 눈</p> <p>2) 달콤한 쿠키를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쿠키를 직접 구워야겠다고 생각했음.</p>
6쪽	<p>1) (예시답안) 사막 들쥐는 엄마가 자신의 말을 하나도 들어 주지 않는다며 고치고 싶다고 했다. 아침에 세수하기, 아침밥 먹기, 동생들에게 간식 양보하기, 밤에 눈 감고 누워 있기, 일기 쓰기 등은 싫고 짜증 나더라도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p> <p>2) 오소리도 엄마 잔소리 때문에 짜증 난 적이 많아서</p>
7쪽	<p>1) (가) : 맛, 거절, 싫다고 / (나) : 몸, 입맛, 물고기 / (다) : 당근 쿠키, 혼자, 친구</p> <p>2) 곰은 어떤 맛을 좋아할지 생각했고, 토끼가 좋아하는 당근을 넣어 쿠키를 만들었음.</p>
8쪽	<p>1) 틀니, 이, 죽 / 입, 부드러운, 입맛      2) 쿠키를 굽는 일</p>
9쪽	<p>1) ① 멧돼지 아저씨가 오소리에겐 선물로 준 나무 팻말 간판, ② 속상한 오소리가 따듯하고 달콤한 쿠키를 만드는 장면, ③ 오소리가 고치지 못한 작업복, 낚싯대, 우산, ④ 오소리가 낡고 오래된 통나무집을 발견하고 살기로 결심한 장면, ⑤ 멧돼지 아저씨와 곰, 토끼가 화가 나서 집으로 가는 장면, ⑥ 숲속의 동물들이 오소리 쿠키를 맛있게 먹는 장면</p> <p>2) ④ ⇨ ③ ⇨ ⑤ ⇨ ② ⇨ ⑥ ⇨ ①</p>